

출판·서점업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2월 8일(수) 11:30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



인쇄·출판·서점 업계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한 목소리’

대형가맹점과 중소기업과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부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인쇄·출판·서점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icho@print.or.kr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를 비롯한 21개 인쇄·출판 단체 대표는 구랍 16일 국회 본관에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8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를 위한 범 출판인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인쇄·출판·서점업계의 카드수수료율이 업종별 최고 수준인 3.0%로 골프장, 주유소, 대형할인점, 대형병원 등의 카드수수료율(1.5%)과 평균 카드수수료율(2.09%)보다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인쇄·출판·서점업계의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이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환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은 1.5%인데 비해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은 2.0~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소상공인, 서민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법과 정부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야 하며, 과도한 판촉비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과도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업종·규모별 차별을 시정하여 경제주체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업종 간에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가맹점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수입한 수수료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벌칙도 명시했다.

또 지난 2월 7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출판서점계 대표 등이 참여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공동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한명숙 민주당 통합당 대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카드수수료율 1.5% 인하는 민주당 통합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다. 지난해 10월에 민주당 통합당은 수수료율 1% 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율 인하 범위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도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

수수료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담당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김영환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1.5%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달 6일 신용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신한카드 결제 거부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단체 오호석 대표는 “영세자영업체들이 불경기에 높은 카드 수수료율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인하여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카드사가 꿈쩍하지 않아 처벌을 각오하고 결제 거부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삼성·현대·롯데 등 3대 대기업 계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업계 대표 및 가맹점들의 단체행동은 간담회, 결의대회를 넘어 처벌을 각오한 실행사까지 이어지는 등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

〈표1〉 인쇄·출판·서점업종 주요 카드사별 수수료율 (단위: %)

카드사	서점	인쇄·출판
KB국민카드	2.95 ~ 2.99	2.60 ~ 2.99
롯데카드	2.97 ~ 3.50	2.70 ~ 3.50
비씨카드	2.92	2.65 ~ 3.13
삼성카드	2.95 ~ 3.50	2.70 ~ 3.50
신한카드	2.74 ~ 3.30	2.39 ~ 3.30
외환카드	3.06 ~ 3.24	2.70 ~ 3.33
현대카드	3.10 ~ 3.60	2.70 ~ 3.60
하나카드	2.92	2.42 ~ 3.28

〈표2〉 주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업종	세부 업종	수수료율
항공사	항공사 등	1.50 ~ 2.70
골프장	골프장 등	1.50 ~ 2.00
할인점	대형 할인점 등	1.50 ~ 2.50
주유소	주유소, LPG취급점 등	1.50
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1.50 ~ 2.65
학원	외국어학원, 유치원 등	3.00 ~ 3.30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2.60 ~ 2.70
서점	서점 등	2.74 ~ 3.60
사무문구업체	인쇄, 출판, 문구 등	2.39 ~ 3.60